

어린이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책읽기 요령보다 책읽는 마음가짐을

김병규 · 동화작가 · 소년한국일보 기자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독서지도서는 거의 모두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점수따기’를 미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요령이 아니라 책을 읽는 마음가짐이다.”

‘어린이 독서 길잡이 책이 과연 필요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는 진정한 어린이 독서 길잡이 책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도 된다. 어린이 독서에 관한 책은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말 그대로 길잡이 책으로 어린이들에게 ‘독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끌어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어린이 독서는 이렇게 지도하라’는 안내서이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그 출발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독서지도서들의 거의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점수 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수능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미끼로 손님을 낚으려는 책들이다.

흔히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셈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밥걱정을 덜어 준다고 한다. 이러한 미끼로 독서를 가르치는 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못된다. 스스로 먹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쉬운 먹이 찾기에 길들게 하여 미끼나 덩석 물다가 낚시꾼의 밥이 되는 나쁜 버릇만 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책들은 온갖 잡다한 요령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요령이라는 것은 합정일 뿐이지, 결코 더 넓은 세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나 더 질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없다. 독서지도란, 어린이들에게 바른 삶에 대한 ‘모색(찾음)’의 하나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

지 못한 책은 결코 독서의 보람과 즐거움도 알려주지 못하고 ‘논술점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요령이 아니라 책을 읽는 마음가짐이다.

어린이들에게 집을 구경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글을 두 무리에게 읽게 한 실험이 있다. ‘가’반은 ‘나는 복덕방 주인’, ‘나’반은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며 읽고 내용을 쓰게 했다. 그 결과 ‘가’반 어린이들은 못이 빠진 마룻장, 깨어진 유리창, 물이 새는 천장 등 복덕방 주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을 적어냈다. 반면 ‘나’반은 자물쇠, 골동품, 열려진 뒷문, 개집이 있는 곳 등 도둑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얻는 것이 다른 것이다. 독서길잡이라면서, 책에서 점수만 찾는 요령을 가르쳐서야 되겠는가. 어린이에게 바른 삶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요령을 알려주는, 제대로 된 독서지도서라면 ‘정말 필요하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개혁’은 학급문고에 꽂힌 책에서부터

이주영 · 서울 삼전초등학교 교사

“독서교육의 내용을 개혁하지 않고 어린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독서교육은 국어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책부터 먼저 갖춰줘야 한다.”

요즘 학교현장은 ‘교육개혁’의 물결로 어지럽다. ‘열린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촌지 근절’...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독서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교 독서교육은 잘 되기 때문에 개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인가? 학교교육의 일선에서 있는 교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현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결코 어린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독서교육의 개혁이 함께 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학교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교과서에 담긴 지식은 너무나 단순하고 편협하다. 급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미처 담아내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단원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담은 다양한 책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교사들이 교과서 단원목표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는 정보, 지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린교육의 방법이 겨우 단편적인 정보를 담은 학습지 위주로 되고 있을 뿐 질 좋은 책을 활용하는 독서교육을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과서를 재편성하거나 다양한 교육자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열린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독서교육은 국어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각 교과와 관련한 독서지도는 물론 국어교과와 관련한 독서지도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학교, 교육청, 각 사회단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쓰기 대회가 있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사위주로 진행되어 독서교육에 해를 끼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4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을 잘 하기로 소문난 사립학교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열린교육을 한다고 교실과 복도에 꽂아놓은 책을 보고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 학년 교과지도에 맞는 책이 적었고 인성지도에 중요한 동화책도 드물었다. 오히려 인성지도에 해를 끼칠 책이 섞여 있었고, 요즘 새로 나온 우수한 책들이 몇 권 안 보였다.

지난 주에 지방 초등학교를 견학했다. 교단 선진화로 컴퓨터, 멀티비전, 스캐너, 복사기, 캠코더, 오디오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들은 맞춤법 개정 전에 출판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책은 쓰레기인데 기자재만 바꾸면 교단 선진화인가? 학급문고, 학교 도서관이 이처럼 부실한 모습은 비단 이 두 학교 모습만이 아니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첨단 기자재보다 먼저 좋은 책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 또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새로 나오는 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교과지도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알맞은 책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교육재정을 확보해 줘야 한다.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행정가,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독서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어린이권장도서 선정 신중해야 한다

전영순 · 파랑새어린이도서관 대표

“권장도서는 저·역자, 장르 소개를 정확히 하고, 대상을 좀더 세분화해야 하며 학습서·만화 등 상업적인 도서선정을 지양해야 한다.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좋은 책이 선정되도록 신중해야 한다.”

4월초에 교육부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초등학교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2학기부터 독서량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하지만 마냥 좋아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도서실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고, 있어도 버릴 책만 쌓아놓은 곳도 많은데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책을 읽나?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결국 책을 사 줄 수 있는 가정의 어린이만 생활기록부를 빼곡이 채울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빠른 시일 안에 그 계획을 뒷받침해줄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되기 바란다.

아무튼 교육부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어린이독서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곳에서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해왔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책을 일일이 살펴보고 고르기가 쉽지 않으니 각 단체에서 발표하는 권장도서목록이 학부모나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어린이책과 관련이 있는 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한우리독서운동본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하고, 대형서점과 어린이도서총판에서도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한다. 일간지에는 권장도서목록은 아니지만 신간을 소개하거나 기획이 뛰어난 시리즈물을 기사로 다루기도 한다.

대형서점에서 권하는 책들은 아무래도 여러 출판사의 책을 골고루 권해주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학부모들이 믿고 자녀들에게 읽히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98년도 00문고 선정 초등학생 권장도서 100선'은 대형문고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몇가지 문

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나 역자, 장르가 잘못 소개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웅진출판사에서 나온 《엄마 없는 날》은 우리 아동문학계의 큰 기둥인 이원수씨의 창작동화인데 외국동화로 소개되어 있다. 둘째, 저학년용 50권 고학년용 50권으로 총 100권을 추천했는데 대상을 너무 넓게 잡았다. 어린이들은 성장속도가 빨라 학년에 따라 독서력에 큰 차이가 난다. 아무 도움말 없이 그냥 저학년용, 고학년용으로 한꺼번에 50권씩 책을 선정해 놓으면 어린이들은 자기에게 맞는 책을 고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굳이 권장하지 않아도 될 책을 선정해 놓은 것이 상당수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글짓기학습서, 학습동화, 여행서, 교양만화까지 들어가 있어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독서관련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나 한우리독서운동본부에서 시기에 따라 선정하여 권장하는 책들은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만큼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함은 물론 즐겨 읽을 만한 책들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어린이 신간을 늘 꼼꼼히 읽어보고 책을 골고루 그 대상에 맞게 선정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믿고 읽혀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상을 초등 1~2, 3~4, 5~6학년으로 나누다 보니 학년에 맞지 않는 책이 있을 수 있다. 대상을 세분하기 어려워 약간 넓게 권하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나 1, 2학기를 나누어 대상을 다르게 구분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

온갖 영상매체들이 어린이들을 잡아끌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어린이들을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권장하는 책을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어린이가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 책이 인생의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영상의존적 아이들! 독서가 두렵다

조정하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아이들의 사고와 생활이 지나치게 영상의존적으로 흐르고 있다.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영상매체 속에서 자신만의 정리된 사고력을 기르는 일은 '독서'에서만 얻을 수 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각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TV 화면과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것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고, 특히 외국어와 자연과학 등 교육의 현장성과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영상자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영상을 활용한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방송학교' 등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을 실시해오던 우리 단체에서는 한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아이들의 사고와 생활이 지나치게 영상의존적이라는 점이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옳다고 믿어 활자매체를 통한 이해 및 사고력의 결과와 갈등관계일 땐 그를 쉽게 부인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세계에 몰입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의 영상교육이 영상이 갖는 특성과 속성에 대한 이해 및 적응교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자재가 갖는 유용성만 생각한 절름발이식 교육에 근거한다.

잠시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영상환경을 돌아보면, 텔레비전과 영화 등 전통적 미디어에서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CDV, CDG, CDEG, CD-ROM 등 CD계열에서부터 ROM-PACK, DVD-ROM, DVD-비디오에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방식의 영상이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그 안에는 영화, 뮤직비디오, 오락게임, 학습교재, 다큐멘터리 등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영역이 널려 있다. 아이들의 정보접근을 신속하게 채워주고 또한 풍부하게 제공하는 점은 물론 대단히 긍정

적이다. 그러나 영상정보에 대한 수용문화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그 이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영상의존적인 아이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집중력과 사고의 자율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영상을 통한 정보접근의 특성은 시각적 장치로 인한 흥미로움과 재미는 더할 나위 없으나 전달받는 메시지 과정이 지극히 짧다. 또한 주의력 없이도 메시지를 얼마든지 제공받는다. 곧 영상을 통한 메시지 소통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영상문화가 갖는 수준을 돌아보면 더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인 영상매체인 텔레비전 문화를 돌아보자. 상업적이고, 탈정치적이며 나아가 편파적이고,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 사회의 평균교육수준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작위 대중에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나 아이들의 교육적·정서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정서순화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텔레비전을 뺏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공중파 채널의 분화와 곧 이어질 케이블 TV와 위성 TV의 대중화 현상은 상상 이상의 비디오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영상시대라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영상의존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고의 깊이를 채워줄 또다른 대안을 절박하게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독서의 존재이유가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만의 정리된 사고력은 독서로부터 얻는다. 일정시간 집중해야 하고, 생각할 수 없고, 간추릴 수 없고, 무던히 수공업적으로 보이는 행위지만 그래도 그 속에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함이 숨어 있다. ❖